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의 보건수업 수행에 대한 교사효능감 관련요인

김영숙¹ · 하영미² · 박현주³ · 정혜선⁴ · 권은하⁵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¹,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 건강과학연구원², 가천대학교 간호학과³,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⁴, 동구마케팅고등학교⁵

Factors related to Teachers' Self-efficacy in Korean Health Teachers

Youngsook Kim¹ · Yeongmi Ha² · Hyunju Park³ · Hye-Sun Jung⁴ · Eunha Kwon⁵

¹Seoul School Health Promotion Center, ²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⁴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⁵Donggoo Marketing High School

ABSTRACT

Purpose: There is little known about teachers' self-efficacy in health teachers even though over 75% of Korean health teachers have offered school healt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related to teachers' self-efficacy in Korean health teach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school nurses from 474 schools such as 236 elementary schools, 140 middle schools and 98 high schools in Seoul with the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The associations among school characteristics, health teachers' characteristics, and teachers' self-efficacy were examined by ANOVA (ANalysis of variable). To identify the possible predictors of teachers' self-efficacy, 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was performed.

Results: Two factors, school stage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 and types of school (public or private school),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eachers' self-efficacy. Teachers' self-efficacy of health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middle and high schools. Health teachers in private school had significantly higher teaching self-efficacy than ones in public school.

Conclusion: Given the fact that health teachers in elementary and private school had higher teachers' self-efficacy, an intervention to strengthen teachers' self-efficacy of health teachers in middle and high schools as well as ones in public school is required to help children and adolescents learn good health behaviors.

Key Words: Health teacher, School health education, Teachers' self-efficac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유일한 보건인력 담당자로서 보건교사의 역할은 아주

다양하다. 그중에서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한 역할은 보건수업 수행을 위한 교육자로서의 역할이다. 학교 보건교육은 급성 감염병의 감소와 만성질환의 증가, 신종 감염병의 출현,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 증가,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관심 증대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윤순영 등, 2011).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비정기적

Corresponding author: Yeongmi Ha

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92 Chilam-dong, Jinju 660-987, Korea.
Tel: +82-55-772-8253, Fax: +82-55-772-8222, E-mail: yha@gnu.ac.kr

투고일: 2012년 4월 5일 /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2일

형태로 보건교사에 의해 수행되었던 보건교육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5-6학년년을 대상으로 17차 시 이상 보건수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 이수를 통하여 보건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렇게 정기적 형태의 보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이뤄지게 된 것은 학생과 교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최적의 건강상태에서 학습을 할 경우 높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본 사회적 변화에 기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 내에서 보건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보건의료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보건수업 수행을 통한 교육자로서의 역할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보건교사는 학생과 교직원이 평생건강을 위한 자기건강관리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학교 내 유일한 보건의료인력이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은 보건교사의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형태의 보건교육을 통해 올바른 건강행위 습득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효과적인 학업성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교사 효능감인데, 교육자의 교사효능감(teachers' self-efficacy)이란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믿음 혹은 판단을 의미한다(Ashton & Webb, 1986; Gibson & Dembo, 1984; Tschannen-Moran & Woolfolk Hoy, 2001). 비록 교사효능감이 학생의 학습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의 교수행동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Erdem & Demirel, 2007; Tschannen-Moran & Woolfolk-Hoy, 2001). 교육경력과 해당분야 지식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교사효능감이 낮다면 동기부여가 이뤄지지 않아서 충분한 교육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에,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육자는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고,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llinder, 1994; Guskey, 1988). 또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육자는 어려운 수업상황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육방법과 매체를 사용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좀더 개방적인 경향을 보였다(Allinder, 1994; Guskey, 1988; Tschannen-Moran & Woolfolk Hoy, 2001). 최근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이 높은 보건교사는 보건수업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학생들이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배양하고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습득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김근곤 등,

2011). 이렇듯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질 높은 교수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에게서 긍정적 교육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교사효능감과 학생의 학업성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은 크게 '교사 수준의 변수: 학생·학부모·동료·학교장의 인식, 업무량, 교사의 성별·학력·교직경력'과 '학교 수준의 변수: 동료교사간의 협동, 교장의 리더십, 학교규모, 학교 소재지, 학교급'으로 나눌 수 있다(박정주, 2010; 이혜미, 2007). 먼저 일반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교사 수준의 변수로 높은 교직경력(이수진 등, 2010; 이재숙과 이형실, 2009; Ross et al., 1996; Wolters & Daugherty, 2007)과 높은 학력(이수진 등, 2010)이 높은 교사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학생·학부모·동료·학교장의 인식과 업무량에 따른 교사효능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을 살펴본 김근곤 등(2011)의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연령과 교직경력에 따라서 교사효능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록 학교수준의 변수와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수준의 변수와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Wolters & Daugherty, 2007), 학교설립유형에 따라서 일반교사의 교사효능감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은, 2010; 이수진, 2010).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일반 교과목 교사들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었고, 정기적 학교보건교육이 시작된 2009년 이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김근곤 등(2011)의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 1편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연령, 학력, 교직경력' 등의 교사수준의 변수와 '학교급, 학교설립유형' 등의 학교수준의 변수를 중심으로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교과목은 학생들의 입시 혹은 상급학교 진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건교육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진행할 때 무기력함과 업무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박현주, 2010). 하지만 이런 취약한 교육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평생건강을 위한 초석을 보건교육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는 보건교사의 신념과 교사효능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모든 보건교사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정기적 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보건교사들의 약 75%가 비정기적 형태의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박현주, 2010),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과 교사 특성에 따라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고,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을 파악한다.
-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다.
-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을 규명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단면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시에 등록된 1,268개(특수학교 제외)의 학교(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포함)가 모집단으로, 초등학교 586개, 중학교 374개,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308개로 구성되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학교급별로 계층을 만들어 각 계층별로 50%에 해당하는 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였으며(초등학교 268개,

중학교 161개, 고등학교 136개), 18학급 이하의 학교(초등학교 51개, 중학교 52개, 고등학교 36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18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학교 보건교사는 중·대규모학교 보건교사에 비해서 5~6학년의 학급수가 작아 법적 수업시수가 적기 때문에 보건교육에 대한 시간적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총 704개의 학교가 표본으로 추출되었고 선정된 학교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선정된 학교의 보건교사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이 중 490명이 회신하여 68.6%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16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474개교(초등학교 236개교, 중학교 140개교, 고등학교 98개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설문지는 교육학 박사수료 1인과 간호학 교수 2인으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선행연구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서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조사항목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 영향요인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특성, 보건교사의 특성, 교사효능감'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 특성'에 대한 질문은 학교설립유형(국립·공립·사립), 학급규모(단위학교의 학급수)에 대해 조사하였고, '보건교사의 특성'에 대한 질문은 보건교사의 연령, 학력, 교직경력, 보건교사 이전의 병원 간호사경력, 고용상태, 주당 보건교육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교사효능감(teachers' self-efficacy)을 측정하기 위해 Schwarzer, Schmitz와 Daytner (1999)가 교사의 자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Likert 4점 척도로서 전혀 자신 없음(1점), 자신 없음(2점), 자신 있음(3점), 매우 자신 있음(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1명의 보건교육 관련 전문가와 2명의 간호학교수가 번안을 했으며, 번역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영문판 교사효능감 도구(Schwarzer et al., 1999)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② 한국어로 번역된 교사효능감 도구를 다시 영문으로 재번역하였다; ③ 영문으로 재번역된 도구와 도구의 영어 원문을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서로 비교하였다; ④ 잘못 번역된 2개의 문항에 대해서 다시 ①-③의 과정을 거쳤다; ⑤ 10문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번역이 완료된 이후 연구진 회의를 거쳐 도구를 확정하

였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76$ 에서 .82로 조사되어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초·중·고등학교의 특성과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초·중·고등학교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Bonferroni test)을 실시하였다.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Bonferroni tes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ANC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학교 및 보건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보건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고등학교가 각각 29.5%, 20.7%를 차지하였다(표 1). 학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국·공립학교의 비율이 78.0%를 차지하여 사립학교에 비해서 국·공립학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학급 규모에 있어서 18~36학급 미만 학교는 5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6학급 이상의 중·대규모학급 학교가 전체 조사 대상 학교의 36.0%, 18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비율은 9.5%를 차지하였다.

서울 지역 보건교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2/3 이상의 보건교사가 40세 이상, 대졸의 학력수준, 1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교사 이전에 병원에서의 간호사 임상경력은 3년 미만인 경우가 51.7%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보건교사가 88.6%를 차지하였다. 주당 보건수업 시수는 3시간 미만 39.6%, 3~6시간 미만 29.1%, 6~14시간 31.3%를 차지하였다.

2. 초·중·고등학교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문항에 대한 평

<표 1> 학교 및 보건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항목	구분	n (%)
학교급	초등학교	236 (49.8)
	중학교	140 (29.5)
	고등학교	98 (20.7)
학교 특성	학교설립유형	국·공립 365 (78.0) 사립 103 (22.0)
	학급수	18학급 미만 45 (9.5) 18~36학급 미만 257 (54.5) 36학급 이상 170 (36.0)
보건교사 특성	연령	40세 미만 125 (26.4) 40~49세 164 (34.6) 50세 이상 185 (39.0)
	학력	전문대졸 77 (16.3) 대졸 293 (62.1) 대학원졸 102 (21.6)
	교직경력	10년 미만 151 (31.9) 10~25년 미만 182 (38.4) 25년 이상 141 (29.7)
	간호사 경력	3년 미만 245 (51.7) 3년 이상 229 (48.3)
	고용상태	정규직 428 (88.6) 기간제 53 (11.4)
주당 보건수업 시수	3시간 미만	180 (39.6)
	3~6시간 미만	132 (29.1)
	6~14시간	142 (31.3)

균의 범위는 2.36~3.09점(4점 만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2). 교사효능감에 관한 10문항 중에서 초·중·고등학교별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문항은 “보건교육 실시를 방해하는 제약점(예: 예산 축소나 행정적인 문제점 등)이 있을 때에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여 계속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문항으로, 초등학교 보건교사 2.59±0.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중학교 2.41±0.62점, 고등학교 2.31±0.62점으로 각 학교급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3.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

학교급,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학교급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49$),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이 27.51±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 보건교사의 효능감 26.92±4.04,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

<표 2> 초·중·고등학교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문항	초 ^a	중 ^b	고 ^c	F	p
	M±SD	M±SD	M±SD		
말을 잘 안듣는 학생들에게도 전반적인 수업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자신한다.	2.54±0.58	2.47±0.59	2.40±0.64	2.08	.126
보건수업과 관련하여 학생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74±0.56	2.76±0.55	2.65±0.59	1.23	.292
내가 아주 열심히만 한다면, 말을 잘 안듣는 학생도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66±0.58	2.61±0.55	2.57±0.66	1.00	.368
교육경력과 경험이 쌓이면, 학생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3.01±0.58	3.00±0.54	2.98±0.54	0.09	.911
수업 중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있어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속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88±0.58	2.81±0.59	2.79±0.56	1.13	.323
비록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학생들의 요구에 잘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	2.84±0.55	2.73±0.59	2.76±0.56	1.96	.142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학생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나 학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9±0.52	3.02±0.57	3.00±0.54	1.37	.255
보건교육 실시를 방해하는 제약점(예: 예산 축소나 행정적인 문제점 등)이 있을 때에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여 계속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2.59±0.66	2.41±0.62	2.31±0.62	7.60	.001 a>b>c ¹⁾
나는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2.61±0.61	2.65±0.63	2.48±0.61	2.19	.113
동료교사들이 혁신적인(새로운) 교육방법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실행할 수 있다.	2.50±0.66	2.47±0.66	2.36±0.62	1.55	.214

¹⁾Bonferroni test.

사효능감 26.41±3.61점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은 감소하였으며,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이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사립의 학교설립유형과 학급수에 따른 교사효능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의 특성중에서 학력, 교직경력, 간호사경력에 따른 교사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보건교사의 연령, 고용상태와 주당 보건수업 시수에 따른 교사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의 학력의 경우 보건교사가 전문대/대졸의 학력일 경우 26.92±3.75점, 대학원 졸업일 경우 27.81±4.04점으로서 보건교사의 학력수준과 보건교사의 효능감은 정적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40). 또한 보건교사의 교직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26.60±3.69점, 10~25년 미만인 경우 27.0±3.66점, 25년 이상인 경우 27.80±4.08점으로 교직경력이 증가할수록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증가하였으며, 10년 미만의 교직경력을 가진 보건교사보다 25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보건교

사의 교사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27). 보건교사의 간호사 경력은 교사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26.67±3.69점, 간호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27.51±3.92점을 보였다(p=.019).

4.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유의미하게 관련있는 요인은 학교급(초·중·고등학교)과 학교 설립유형(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학급수와 보건교사의 특성요인(연령, 학력, 교직경력, 간호사경력, 고용상태, 주당 보건수업 시수)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학교교육현장에서 교사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

<표 3>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사효능감

항목	구분	M±SD	t or F	p	
학교급	초등학교 ^a	27.51±3.82	3.04	.049 a > c ¹⁾	
	중학교 ^b	26.92±4.04			
	고등학교 ^c	26.41±3.61			
학교 특성	학교설립유형	국·공립	3.16	.076	
		사립			27.71±3.51
	학급수	18학급 미만	0.84	.431	
		18~36학급 미만			27.11±3.69
		36학급 이상			26.90±4.12
보건교사 특성	연령	40세 미만	1.49	.227	
		40~49세			26.80±3.98
		50세 이상			27.48±3.89
	학력	전문대/대졸	4.23	.040	
		대학원졸			27.81±4.04
	교직경력	10년 미만 ^a	3.66	.027 a > c ¹⁾	
		10~25년 미만 ^b			27.00±3.66
		25년 이상 ^c			27.80±4.08
	간호사 경력	3년 미만	5.51	.019	
		3년 이상			27.51±3.92
	고용상태	정규직	0.09	.768	
		기간제			27.27±4.06
	주당 보건수업시수	3시간 미만	0.45	.637	
		3~6시간 미만			27.39±3.38
		6~14시간			26.98±4.24

¹⁾Bonferroni test.

<표 4>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

항목	분류	Mean square	F	p
학교급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86.51	6.14	.002
학교 특성	학교설립유형 (국·공립/사립)	118.88	8.44	.004
	학급수	8.10	0.58	.563
보건교사 특성	연령	14.90	1.06	.348
	학력	44.75	3.18	.075
	교직경력	15.44	1.10	.335
	간호사 경력	44.24	3.14	.077
	고용상태	17.39	1.24	.267
	주당 보건수업 시수	9.17	0.65	.522

사의 교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에, 학령기 이동과 청소년의 바람직한 건강행위 습득을 위한 보건수업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중·고등학교 보건교사에 비해서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Wolters 와 Daugherty (2007)가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그들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사효능감이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이유로 학교조직 분위기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학생과 교사에게 좀더 허용적인 학교분위기를 형성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동기 부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Wolters & Daugherty,

2007).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이유는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입시와 관련된 부담감이 적어서 교과목 편성이나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 보건교과를 가르치는 보건교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조직의 분위기가 좀 더 허용적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비정기적으로 보건수업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2009년부터 연간 17차시 이상의 정기적인 보건수업활동을 통해서 수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효능감이 축적된 것이 부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학교 특성 요인중에서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분석결과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이 공립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사의 교사효능감과 학교설립유형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립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은 이유는 높은 상급학교 진학률 혹은 순환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때문이라고 하였다(이수진 등, 2010; 이혜미, 2007).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교과목이 상급학교 진학과는 무관한 과목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의 근무환경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기관의 보육시설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학습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져서 국·공립시설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민간기관의 보육교사보다 높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강정은과 송다영, 2010). 최근 교사효능감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효능감이 교사 개인이 지닌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기보다는 교사를 둘러싼 외부환경 혹은 학교가 가진 신념체계 혹은 개별 학교의 상황과 조직풍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주동범, 2009; 정우영, 2005; 홍혜정과 안선희, 2004). 따라서 보건교사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조직풍토의 차이에서 비롯된 특성이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직경력과 교사효능감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교직경력은 교사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강영심과 황승영, 2005; 김근곤 등, 2011; 이수진 등, 2010; 이재숙과 이형실, 2009; Ross et al., 1996; Wolters & Daugherty, 2007). 즉,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지도에 대한 신념과 동기, 능력이 더불어 높아지고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교직경력이 높은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였다(Wolters & Daugherty, 2007). 하지만 본 연구결과 보건교사의 교직경력이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선행연구 중에서 자폐아동을 교육하는 교사의 교직경험과 교사효능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uble et al., 2011), Gibson과 Dembo (1984)는 교직경력이 10년이 될 때까지는 교직경력에 따라 교사효능감이 상승하지만, 10년 이후부터는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의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통해서 오랜 교직경력 자체가 성공적인 교수경험, 최상의 교육방법 습득 및 교수활동의 유능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서울 지역 보건교사의 교직경력이 교사효능감과 관련이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전에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보건교사들은 비정기적인 형태로 보건수업을 실시하였고, 학교보건교육 이외에 보건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검사, 감염병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건교사가 교직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높은 교직경력이 보건수업을 수행한 경력이 많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직경력과 교사효능감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이 일부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을 학교 특성 및 보건교사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보건교사의 개인적 특성요인보다 학교급 혹은 학교설립유형과 같은 학교조직요인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을 파악한 강정은과 송다영(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보육교사의 개별 특성요인보다는 학교의 조직풍토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으로 교사 개인의 특성이 아닌 교사가 처한 사회환경적 맥락인 학교조직 풍토 혹은 교사집단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의 학습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교사효능감과 같은 요인이 교사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주, 2010). 집단적 교사효능감은 비슷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교육환경아래 일하는 교사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교육목표 성취를 위해서 학교 내 교사들이 어떻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어떻게 교사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은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박정주, 2010; Goddard, 2004).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 집단적 교사효능감과 학교 조직이라는 큰 틀 내에서 보건교사의 직무 관련요인, 예를 들면 보건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교수학습 지원, 학생의 특징, 보건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동료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어떤 학교문화 혹은 학교조직요인이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더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1268개(특수학교 제외)의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모집단으로 하고, 704개교의 보건교사를 층화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대표성을 지닌 표본을 추출하여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를 전국 보건교사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제한점은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와 달리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효능감 측정도구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당성을 검증받았기에 보건교사가 가진 특수한 상황을 간과하기 쉬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다양하고 특수한 역할에 적합한 보건교사를 위한 교사효능감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과 교사 특성에 따라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하고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총 704개의 학교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474개교(초등학교 236개교, 중학교 140개교, 고등학교 98개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중·고등학교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교 특성요인으로 국·공·사립학교의 학교 설립유형의 차이가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수준의

변수인 '보건교사의 연령, 학력, 교직경력, 간호사경력, 고용상태, 주당 보건수업 시수'는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학교 특성'이나 '교사 특성' 뿐만 아니라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조직문화'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한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급(초·중·고등학교)과 학교 설립유형(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따라 교사효능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서로 다른 학교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교사효능감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은 보건교육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향후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평생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행위 습득이 아주 중요하며, 이러한 학생과 교직원들의 올바른 건강행위 습득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교사효능감은 교육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소진감을 완화시켜준다는 여러 선행연구결과가 있으므로(Egyed & Short, 2006; Schwarzer & Hallum, 2008; Skaalvik & Skaalvik, 2007),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유지·증진뿐만 아니라 보건교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소진감 완화를 위해서 보건교사를 위한 교사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영심, 황순영(2005). 특수교사의 교사효능감 수준 및 영향 요인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0(1), 305-320.
- 강정은, 송다영(2010).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9(2), 81-114.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통계서비스[Online]**. Available: <http://cesi.kedi.re.kr/index.jsp> [2011, October 10].
- 김근곤, 김근배, 전미숙(2011).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9(2), 22-42.
- 박정주(2010). 집단적 교사효능감에 대한 개인 및 학교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4), 21-41.
- 박현주(2010). **학교 보건교육 정착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연구용역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청(2011). **서울교육통계: 연도별 학교현황[Online]**. Available: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List>.

- action?bbsBean.bbsCd=65 [2011, October 10].
- 윤순녕, 김숙영, 김영숙, 김춘미, 박정희, 이갑순, 이복임, 이현주, 이홍자, 최은숙, 최정명, 현혜진, 하영미(2011). **보건교육방법론**. 4-20. 서울: 수문사.
- 이수진, 서영민, 이영준(2010). 개인 특성에 따른 정보·컴퓨터 교사효능감 분석. **중등교육연구**, 58(3), 113-132.
- 이재숙, 이형실(2009). 가정과 교사의 교사효능감 관련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1(1), 21-34.
- 이혜미(2007).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효능감의 수준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7-93. 서울.
- 정우영(2005). 교사가 지각한 학교조직문화가 교사효능감 및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23(2), 73-90.
- 주동범(2009). 교사효능감의 개념, 측정, 효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동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1(4), 489-498.
- 홍혜정, 안선희(2004). 유아교육기관의 조직건강 및 의사결정참여와 교사효능감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4), 255-273.
- Allinder, R. M.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acy and instructional practice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consultants. *TESE*, 17, 86-95.
- Ashton, P. T., & Webb, R. B. (1986). *Making a differenc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Longman.
- Egyed, C. J., & Short, R. J. (2006). A disruptive student.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7(4), 462-474.
- Erdem, E., & Demirel, O. (2007). Teacher self-efficacy belie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5(5), 573-586.
- Gibson, S., & Dembo, M.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569-582.
- Goddard, R. D., Hoy, W. K., & Hoy, A. W. (2004). Collective efficacy beliefs: Theoretical developments, empirical evidence, and future directions. *The Educational Record*, 33(3), 3-13.
- Guskey, T. R. (1988). Teacher efficacy, self-concept, and attitudes toward the implementation of instructional innovation.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4, 63-69.
- Ross, J. A., Cousins, J. B., & Gadalla, T. (1996). Within-teacher predictors of teacher efficac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2, 385-400.
- Ruble, L. A., Usher, E. L., & McGrew, J. H. (2011).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sources of self-efficacy among teachers of students with autism.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26(2), 67-74.
- Schwarzer, R., & Hallum, S. (2008). Perceived teacher self-efficacy as a predictor of job stress and burnout: Mediation analyse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7, 152-171.
- Skaalvik, E. M., & Skaalvik, S. (2007). Dimensions of teacher self-efficacy and relations with strain factors, perceived collective teacher efficacy, and teacher burnou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 611-625.
- Tschannen-Moran, M., & Woolfolk-Hoy, A. (2001). Teacher efficacy: Capturing an elusive construc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7, 783-805.
- Wolters, C. A., & Daugherty, S. G. (2007). Goal structures and teachers' sense of efficacy: Their relation and association to teaching experience and academic leve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1), 181-193.